

사회

12억 보험금에 눈멀어 내연남과 짜고...

남편 水葬시킨 '무서운 아내'

(수장)

무안 저수지에 빠뜨려... 전남경찰, 6년만에 검거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남편을 살해한 50대 전직 여성 보험설계사와 내연남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수사팀은 11일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재혼한 남편을 살해한 김모(여·54)씨와 내연남 정모(57)씨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7월23일 밤 10시경 무안군 운남면 자신의 집에서 남편 이모(57)씨에게 수

면제를 탄 건강식품을 복용하도록 한 뒤 이를 마신 이씨가 잠들자 집에서 27km 떨어진 무안군 청계면 한 저수지로 옮겨 내연남 정씨와 함께 남편을 차량에 태운 채 수장한 혐의다.

김씨는 남편을 살해한 뒤 2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으려했으나 남편 시신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 5000만원만 손에 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문씨는 도박판에서 만난 정씨에게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2004년 5월16일 밤 9시40분께 무안군 운남면 한 도로에서 이씨를 살

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문씨는 당시 자신의 1t 트럭으로 이씨의 오토바이를 추돌했으나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부상당한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남편 앞으로 나온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남편 명의로 12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16개에 가입한 뒤 내연남 정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2004년 1차 청부살인 시도 당시 10억원 상당의 생명보험 7개에 가입했다가 미수에 그쳐 계약이 취소된 뒤 2년 뒤 2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9개에 추가로 가입했다.

더욱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김씨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민·형사 소송 등을 제기하며 수사를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보험범죄수사팀을 창설한 뒤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 김씨에 대한 자금·통신추적, 주변 탐문조사 등을 통해 내연남 정씨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재수사 8개월 만에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범행을 자백한 정씨가 남편이 숨진 2006년 김씨의 행적을 진술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교활한 '악녀본색'

남편살해 전직 보험설계사, 수사 좁혀오자 '인권탄압' 민·형사 소송... 보강수사 '발목'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수장시킨 전직 보험설계사 김씨는 무안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인권 탄압'을 빌미로 수사팀을 흔들었다. 김씨는 당시 수사팀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자신을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문제 삼았다. 체포영장 없이 신체를 수색한 사실을 문제삼은 김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팀이 강압수사를 했다"며 제소한 것이다.

이후 2007년 경찰의 임의동행 후 신체 수색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권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김씨는 수사팀 4명을 대상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정공방은 2년간 이어졌으며, 2009년 수사팀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4명이

1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려졌다. 민사소송 패소에 따라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해졌다. 또 민·형사 재판을 거치면서 수사기록이 검찰과 법원에 넘어가 경찰이 장기간 보강수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이 다시 '칼'을 꺼내든 것은 지난해 10월, 새로 창설된 보험범죄수사팀이 미제사건 처리에 나선 것이다.

전남경찰청 김상수 광역수사대장은 "당시 수사팀의 판단 착오를 이용한 김씨의 끈질긴 경찰 흔들기 탓에 이번 사건이 장기간 미제로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585) 김장두



'악질 발바리' 잡았다

경찰, 5년간 수십차례 성범죄 둘 검거

5년여 동안 여성들을 삼상적으로 성폭행 해온 대기업 직원 등 과립치한 '발바리'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어여한 직장과 가정을 갖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광주남부경찰은 11일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강제추행한 국내한 대기업 직원 김모(29)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지역 부녀자들을 상대로 성폭행 2차례, 강간미수 1차례, 강제추행 11차례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3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골목에서 등고 중이던 여중생 A(당시 15세)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25일 뒤인 2009년 4월29일 오후 6시께 집앞에서 A양을 기다리고 있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 2명의 자녀를 둔 김씨는 5년 전부터 성도착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은 이날 또 귀가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한 김모(29)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길거리에서 귀가중이던 B(19)양을 때린 뒤 골목길 등에서 1시간 동안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B양은 치아 2개가 부러졌다.

앞서 김씨는 같은 날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길거리에서 C(여·25)씨를 끌고 가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도·강간·상해 등 전과 18번인 김씨는 B양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가 위치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눈병 예방, 손을 깨끗이... 무더운 날씨에 이어지면서 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11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에서 흥흥어린이집 원생들이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배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험관 아기 시술로 얻은 쌍둥이 집안일 하는 사이 옆드린채 숨겨

북부경찰, 부검키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어렵게 얻은 일란성 쌍둥이라 주변의 부러움과 사랑을 독차지했던 만큼 얼마아빠의 아픔은 컸다. 결혼 4년만에 얻은 자식을 동시에 잃는 사고가 발생,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오전 11시20분께 광주 모 아파트 안방에서 윤모(35)씨의 생후 6개월 일란성 쌍둥이가 옆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 인

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어머니 최모(32)씨는 경찰에서 "오전 8시10분께 안방에서 모유를 먹고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에서 3시간 정도 보냈다가 확인해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아버지 윤씨는 부모의 일손을 도우려고 고향으로 출타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최경주씨가 총인비리 녹취 파일 전달 지시"

법정 증언 나와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총인비리)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주(52) 전 민주통합당 광주시장 위원장이 녹취파일을 입찰에서 탈락한 금호산업 관계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린 총인비리 관련 공판에서 불법 녹취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전문가 김모(42)씨는 녹취 파일을

최 전 위원장이 지시한 메일 두 곳으로 보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6월 8일께 녹취파일을 최 전 위원장이 지시한 금호산업 관계자 이메일로 전송한 뒤 두 번째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참여자 21 변원섭 공동대표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구글 개인정보취급 위법 우려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대해 위법 우려를 표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박태중)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의 현행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최소 수집', '이용자의 동의 절차', '개인정보의 파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자기 '가짜' 판정하자 감정사 폭행

○자신이 예지 중지하던 골동품을 가짜라고 판정한 감정사를 폭행한 '조폭이 경찰서행.

○1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한 조각폭력 고문으로 행세하는 전모(32)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국 방송사 주최 유물 감정행사에서 감정사 안모(60)씨 등 2명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8년전부터 골동품을 수집해 판매해 오던 전씨는 이날 행사에서 자신이 소유한 청나라 백자 화병 등 5점의 유물 감정을 의뢰했다가 모두 '가짜'로 판정받자 화끈하게 주먹질.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 전남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 (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 (지하 1층, 지상 3층)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